연합(Unity) · 성장(Growth) · 섬김(Service)

예배하고 · 교제하고 · 교육하고 · 선교하는

뉴질랜드 장로교 **해밀턴한인교회**

은혜로 30년, 섬김으로 30년

2025년 4월 13일(주일)

종려주일 연합예배 순서

Welcome to worship; Kia ora tatou; 환영합니다;
Akwaaba; An-nyeoung ha-se-yo?; Banuram; Bula Vinaka; Emedi o;
Kedu! Nnoo; Kia orana; Malo e lelei; Namaste; Nimen hao;
Salaam; Talofa lava; Vanakkam; Welkom

찬송/Hymn* – Hosanna, Loud Hosanna (CH4 367, tune Ellacombe WOV 277)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입장)

환영/Welcome (Rev Kelly Gilson and Rev Ham Tae Ju)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Rev Kelly Gilson)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Lift up your heads, O gates! And be lifted up, O ancient doors!
Tha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Who is this King of glory?
The Lord of hosts, He is the King of glory!

여는기도/Opening prayer (Rev Ham Tae Ju)

교회소식/Notices and community time

성경봉독/Bible readings – Philippians 2:5-11 (Jerome Chuang)
Luke 23:1-12 (박춘배 엘더)

한국인특별찬양(지휘: 이규임 권사) - "**Name Of Names(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설교/Sermon – "**혼란의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 Rev Richard Lawrence

키위 특별찬양/Kiwi choir – **Ten Thousand Angels** (by Ray Overholt)

봉헌 및 기도 / Offering and prayer of dedication (Rev Kelly Gilson)

찬송/Hymn – All Glory, Praise and Honour

돕는기도/Intercessory prayers (Elaine Riddell and Jungmi Ko)

주의 기도/Recite (다 같이 자기 나라의 말로) – **The Lord's Prayer**

성경필사본 봉헌 /Dedication of handwritten New Testament (Rev Kelly Gilson &함태주목사)

찬송/Hymn* – Ride On, Ride On in Majesty (CH4 365, tune Winchester New WOV 264)

축도/Benediction (Minister)

참고: 사진 촬영 후 예배당 앞문으로 퇴장

[리차드 로렌스 목사님의 설교문]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 전 기도문:

우주의 광활한 공간 속에서 은하계의 필라멘트와 구름을 지으신 하나님, 푸른 행성 위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우리 인간—의식 있고 살아 있는 존재들—까지도 빚어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복음 앞에 앉아 이해의 문턱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깊이와 넓이를 살아내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당신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빚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키아 오라 타토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뵙게 되어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뜻 깊은 30주년 기념 예배에 저를 초대해 주신 켈리와 함태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국제적인 안정감과 일관성은 지금 더욱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두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 안에서 30년간 이어온 우정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은 'Hello'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30년간 공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나라 사이의 관계가 팽팽하고 긴장감이 높아진 때에, 우리 두 나라 -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 사이의 우정, 그리고 그 우정의 지역적 표현인 이곳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에서의 관계는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왔지만, 이 우정과 동역 관계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관계에 기여하신 모든 분들 - 키위와 한국인 모두 - 에게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공동체는 더 인간 답고, 더 안전하고, 더 기쁘고,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한복의 색감과 김치의 맛을 이제 우리는 로스트 디너의 향기와 파블로바의 모습만큼이나 익숙하게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축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만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실현해야 할 더 큰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로서 살아가는 소명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안일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신학적으로나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나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발견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며, 인간의 본래적 선함과 진보 가능성을 믿고, 과학의 방법과 혜택을 신뢰하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계관 그 이상으로 부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현실을 향한 부름 입니다.

최근 저는 영화 <본회퍼>를 관람했습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의 삶과 제2차 세계대전 중 그의 신앙적 증언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 직전,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주의 작은 마을 플로센뷔르크에 있는 수용소에서 나치에 의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그의 말 중에 이런 고백이 전해집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는 압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조상을 둔 키위이기도 하고, 태평양 섬나라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기도 하며, 한국, 주로 남한에서 온, 혹은 아마 북한에 가족이나 뿌리를 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연령과 경험, 언어, 성적 지향, 종교적 배경과 교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통된 뿌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 '**엔 크리스토(en Christo)**',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뿌리를 말입니다. 자유주의를 넘어선 한 걸음은 '근본적(radical)'이라는 단어가 본래 뜻하는 대로, 뿌리를 확인하고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오는 일입니다.

저는 한 번 더니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신학자 니니언 스마트(Ninian Smart)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서 그는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죠. 믿지 않기에도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그저 겉으로 덧붙인 얇은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까?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질문합니다. 저는 우리가 근본주의자나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풍성한 토양 속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 중에서 '빌립보서 찬가'로 불리는 구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쓴 편지 안에 있지만, 문체나 구성을 보면 바울이 기존에 존재하던 찬양의 형식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나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편지가 주후 61~62년경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총 18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줄 씩 여섯 개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적인 리듬과 노래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찬양이 바울보다도 앞선 신앙 고백이라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묵상과 표현이 예수님의 사후 수십 년 안에 이미 얼마나 깊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신성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마오리어로 말하면 '타오아(Taonga)', 곧 소중히 붙잡을 보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헬라어로 '**둘로스(δοῦλος)**', 곧 '노예'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노래한 장엄한 찬가의 중심에는 우리를 깊이 겸손케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헬라어의 doulos는 단순히 임금을 받는 조수가 아닙니다. 이는 자유와 권리를 모두 상실한 '노예'를 의미합니다.

한국어의 '종' 역시 선택이 아닌 의무와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진정으로 낮아지셨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자신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신적인 특권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삶을 택하셨습니다.

지위와 자기 PR,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이 본문은 우리 중심을 다시금 바로잡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광은 겸손 속에 있으며, 높아짐으로 가는 길은 섬김을 통과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을 몸소 살아내도록 부르십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위를 추구하지 않으며, 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설령 그것이 쉽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그 길이 결국 영광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종 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빌립보서에 대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자기 비움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그분이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는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으며, 그의 신적 영광은 세상에서 가려졌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억지로나 착취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속에 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하는 각자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사랑을 다 쏟아 붓고, 우리의 달란트를 세상 속에 아낌없이 나눈 인생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체와 섬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삶을 '가장 작고, 가장 늦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겠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레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 '땅과 자원이 부족한 자'들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대학 강의를 들으며 자가용 대신 오비터(Orbiter)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한 시크교 남성은 휠체어를 탄 젊은이를 돌보며 자주 버스를 탑니다. 그와 버스 기사는 조심스럽고 인내심 있게 휠체어를 태우고 내립니다.

그 젊은이는 시력이 약하고 자주 불안해하며 신음하는데, 그 곁에서 시크교 남성은 조용히 그의 팔을 어루만지며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그 돌보는 이 안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 젊은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국제 정치와 경제가 요동치는 세상에서 이런 장면은 별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 겨자씨도 작디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변의 오비터 버스 안, 당신의 삶과 제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름 붙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 정치적 함의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나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와 해롯 안티파스 앞에 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으로서 제국을 대표했고, 해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로마에 복종하는 유대인의 통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와 가르침은 이 당시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한 것 중 하나가 제 기독교적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준 일이기에 기쁩니다. 첫 번째 방북 중, 안내원이었던 지연옥 씨가 저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자입니까?" 그것은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묻는지도, 제 대답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신자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신자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답을 바탕으로 그녀는 다음 날 주일 아침, 저의 평양 칠골 교회 방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분명히 밝힐 수 있었던 그 순간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 모두도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 여성과 남성들처럼, 최소한 한 번은 우리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함께 빵과 포도주, 김치와 파블로바를 나누며 참으로 놀라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우정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도시와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표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We are one in Christ.

해밀턴 샌앤드류 교회 키위 및 한인 회중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

대한민국에서 김건일 목사 드림

샌앤드류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키위 형제자매들과 한인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한국의 김건일 목사입니다.
한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년 부활주일 이른 새벽, 와이카토 대학교 호숫가에서 드렸던 샌앤드류 교회의 새벽 성찬예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떡과 포도즙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30년 전, 샌앤드류 교회에서 있었던 한인교회 첫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예배에 직접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저와 제 가족은 동일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샌앤드류 교회에 도착한 것은 1995년 초였습니다. 그때 이미 박상하 성도님과 두 가정의 한인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이후 여러 새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차드 로렌스 목사님과 함께 '하나의 교회, 두 회중'이라는 비전을 나누며 연합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형태는 매우 새로운 시도였고, 두 공동체가 함께 신앙 안에서 선교를 확장해 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뜻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사역이 발전해감에 따라, 저와 리차드 목사님은 종종 강단을 바꾸어 설교하기도 했고, 두 회중은 서로를 방문하며 '환대의 주일(Hospitality Sunday)'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키위 교우들이 한국 자매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 한국 청년들을 키위 가정에 초청하여 홈스테이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두 목회자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교우들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수업을 열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교회와 페리시 카운슬의 리더십과 모든 교우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존 그레이엄의 지혜, 그레엄 키토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폴린 밀로이의 낯선 이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 등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빚은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위와 한인 두 공동체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중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인 성도님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13일 주일
김건일 목사 드림

해밀턴한인교회 30주년 감사 메시지

오늘은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샌 앤드류 교회 안에서 키위 형제자매들과 한 몸을 이루어 함께 걸어온 사랑의 여정이 어느덧 30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난 30년 동안 하나 되어 이 길을 함께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세워 주셨기에 우리는 매 고비마다 다시 일어나 이 길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한인교회는 등록 성도 약 130명, 주일 평균 출석 성도 100명에 이르는 공동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로, 두 부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한국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교회 설립 초기,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정했던 시기에 순수한 믿음과 헌신으로 씨를 뿌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열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님이신 김건일 목사님과 사모님 조건옥 권사님, 그리고 개척 초기에 전심으로 섬겨주신 성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 최풍식 장로님, 박준옥 전도사님, 고정미 엘더와 류서형 집사님, 김용주 집사님 등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겨오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계신 한용대 목사님과 이정희 사모님, 이병우 집사님과 홍성자 권사님, 박춘배 엘더, 이광희 장로님, 모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께, 서리집사님들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요한 목사님과 박지운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앤드류 교회 형제자매들입니다.

30년 전, 한인 이민자들이 해밀턴에 정착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찾고 있을 때, 샌 앤드류 교회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처럼 품어주었습니다. 한인 공동체가 교회의 한 파트로서 반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과 시설을 함께 나누고, 권리와 책임도 동등하게 감당하도록 사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재정적 부담 없이 예배당과 여러 시설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며, 언젠가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예배당과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위 형제자매들은 언제나 인내와 배려로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예배 후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오전으로 당기고자 할 때, 자신들의 예배 시간을 9시 반으로 앞당기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새로운 이들을 위해 예배 시간을 바꿔주는 교회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 가든 파티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한인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시작해 주셨던 따뜻한 배려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샌 앤드류 교회의 목사로서 17년을 섬겨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자주 있었고, 제 언어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발음이 이상하거나 단어 선택이 틀려도 누구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발음이 아닌, 제 마음과 의도를 보셨습니다. 제 말과 생각을 존중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용기를 얻어 두려움 없이 부족한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인내하며 저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해주신 여러 목사님들, 페리시 카운슬 위원들, KKL 위원들, 그리고 모든 키위 형제자매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우리 한인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친절과 사랑, 섬김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순종하신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곧, 이방인과 나그네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여기는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리차드 로렌스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전임 목사님들, Rev. Jean Cotter, Rev. Neil Johnston, Rev. Bruce Hellyer, Rev. Ken Wall, Rev. Mario Weyers, Rev. Kelly Gilson 목사님들께, 그리고 John Graham, Ross William, Peter Gault, Elaine Riddell, Graeme Kitto 등 역대 페리시 카운슬 클럭들과 Parish Clerk으로 수고한 Lance Kendrick, 모든 페리시 카운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계업무를 충실히 맡아주신 Taylor Douglas 씨와 Fraser Annals 씨, 그리고 The Link 공간의 사용을 위해 기꺼이 협조해주신 역대의 The Link 매니저들, 사무행정을 도와주신 모든 시크리터리 여러분, Life Group과 Women's Group의 모든 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변함없이 지지해준 KKL 그룹의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우리 한인들이 여러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섬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키위 형제자매들과 더욱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진심으로 저희를 품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우리 모든 한인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태주 목사

환영과 소식

환 영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St Andrews 종려주일 연합예배의 자리에 부름 받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 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종려주일 연합예배와 기념 행사 와 오찬을 위해 기도하며 솔선하여 동참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나아가 이 역사적인 날을 위하여 자기 일처럼 나서서 섬겨 주시는 키위 형제 자매들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견디고 이겨 내신 성도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병원 입원 중 사랑의 염려와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과 말씀 증거해주신 박지운 목사님께

알림사항 **리차스 로렌스 목사님 설교문, 초대 담임 김건일 목사님 메시지, 함태주 목사의 감사 메시지** –주보 참고

고난 주간 말씀 묵상 안내 - 교회 단톡방에 매일 올려드리는 메시지 묵상 및 기도

Missional Teen s(다문화 청소년) 수련회 (4월 18일(금)-20일(주일), The Ark)

부활감사주일 예배 및 이웃 초대의 날 (4월 20일, 주일 11:30am)

한부모 가정 돕기 Food Bank 4월 주제 - 캔 혹은 팩으로 된 수프, 믹스 수프 등

금일활동 30주년 기념 연합예배 / 30주년 기념 행사 및 오찬
설거지 및 테이블 의자 정리 - 다 같이

금주활동 15일(화) - Bowl's Activity(10:00am)

다음주일 부활주일 및 이웃초대의 날

예배위원 안내

월/일	예배안내	새 가족 안내	주일기도	성경봉독	봉헌
4/20	이광희 장로	권선영 집사 하지은 집사	김기복 집사	진영선 집사	재정부
4/27			신덕녀 집사	임희영 집사	
5/4	김학준 집사		김용주 집사	정경원 집사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마태 27:27-31	마태 27:39-43	누가 23:32-34	마태 27:45-46	요한 19:30	누가 23:46

돕 는 기 도

- 2025년 30주년을 맞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 기도, 찬양, 예배, 말씀, 친교, 사역, 선교가 뜨겁게 살아나고, 해밀턴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불붙게 하는 교회 되도록
- 미셔널 키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비전에 불붙도록
- 오요한 목사님과 박지운 목사님 위에 말씀의 능력과 지혜 와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Lovridge Church와 Jubillie Multi-cultural Church 풍성하게 부흥하는 은혜 주시도록
-30주년을 맞아 드려지는 연합예배 등 다양한 활동에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남녀신도회 임원(회장 이지원 권사, 총무 옥승아 집사, 서기 정경원 집사, 회계 조혜술 집사)위에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섬김의 리더십으로 남녀신도회를 성령을 좇아 섬길 수 있도록
- 건강 회복(홍성자 권사, 홍안나 사모, 권효진 집사, 문점순 사모, 이진우 집사)과 생명의 잉태를 위해
- 영주권(김형기집사, 김 성집사), Day Time Job(권효진 집사)
-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부요 하심의 은총을 부어 주시도록
- 교회 사역과 각 부서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충분하게 부어 주시도록
- 키위 공동체와 한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김으로 더욱 하나 되도록
-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고 각 영역이 공의와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산불이 속히 진압되고 산부로 인한 재해로 고통 하는 땅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는데 앞장서는 가정과 교회 되도록
- 지진을 맞은 미얀마가 속히 안정 되고 회복 되며 소망을 되 찾을 수 있도록
-- 북한의 불의의 권세가 깨지고 국민의 인권과 행복,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달려 갈 수 있는 새 지도자를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땅이 되도록

선교후원사역

극빈 목회자 자녀 장학금 (바누와트)
미얀마 어린이(Kyaw Myat Min)
Christian World Service
월드 사랑의 선물나눔 운동
와이카토 한인회
와이카토 한국학교
K-Center
천사의 집
Lovridge Church
밀알선교회

우리 교회를 돕는 후원처

새하늘교회(안양)
토람선교회
Kaimai 노회